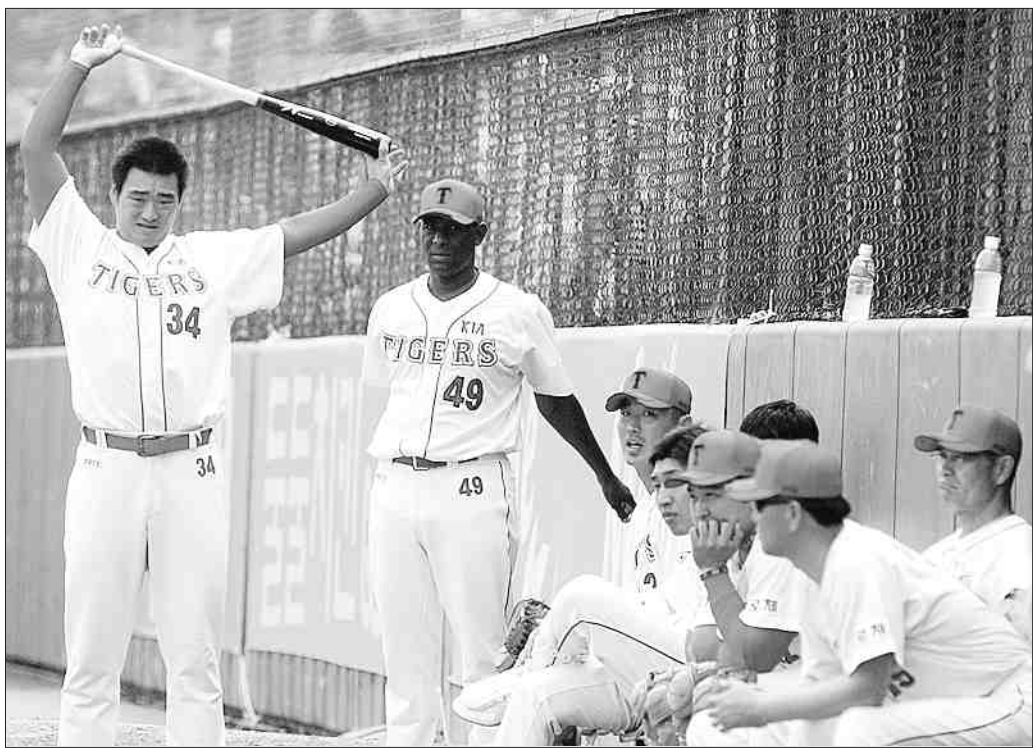


사진기자의 땀 짓



‘토종에이스’ 김진우 투수, 타자 전환?

지난 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을 찾았다가 깜짝 놀라 바로 카메라를 들이켰습니다. 한국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에이스’ 김진우였습니다. 야구장 한 구석에서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폼이 제법 나더러요. 반갑기도 했습니다. 2군으로 내려갔다가 올 시즌 처음 1군에 합류했기 때문이었지요. 지난 2002년 데뷔 첫해 12승, 다음해 11승, 김진우 선수 성적입니다. 150km대를 육박하는 강속구, 낯선 슬라이더로 ‘토종에이스’ 란 애칭이 따라 붙었죠. 올 시즌 그의 활약을 기대했던 골수 팬들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컸나요. 마운드에서 뿌려대는 강속구와 상대 타

자를 압도하는 슬라이더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실점 막기에 급급한 모습이 더 눈에 띄더군요. 올 시즌 첫 선발 등판한 지난 8일 SK전서도 컨트롤 난조로 5이닝동안 볼넷 6개와 폭투 2개를 남발했고 6실점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방망이를 집어든 김진우의 모습이 애처롭더군요. “타자도 바꾸려나 보지, 한 번 해봐, 잘하겠네”라는 응원(?) 소리로 들렸습니다. 192cm, 93kg, 이 정도 체격이라면 타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 들더군요. 하지만 그 자신도 답답하죠. 애타는 팬들 앞에 과잉된 피칭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날이 있겠죠. /니영기자 mjna@kwangju.co.kr

I love MY student



노창수 <광주여자고등학교 교장>

공부하다 지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기회에 선인들의 학습법을 배워볼까요. 요즘처럼 각박한 생활엔 그 방법을 터득함도 좋다고 봅니다. 힘겨울 땀 하늘, 산, 강, 바다 같은 자연으로 가 보세요. ‘자연주의’와 그 누리는 평화는 현대사회에서도 낯익은 이데올로기라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 애씁니다. 모든 사상의 발전사도 인류 본연의 중심이 물론 ‘자연’이었지요. 현대사회의 상업성과 끈질긴 물질의 횡포에도 굴복해서 안 된다

공부하다 지치면 ...

더라도 자신의 가치를 가꾸어나가기 위해 일상의 부분인 자연에서의 귀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연주의’에 대한 만감이 여유 있는 삶의 최적지입니다.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 한 버림으로 바꾸어 가는 역할, 그것이 오늘날 꿈꾸는 자연주의적 평화 아닐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스턴트 식품도, 혼돈스런 전자 매체도, 유행을 쫓는 사치도 ‘자연주의’ 앞에선 한낱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예로 볼스토이를 들지요. 그는 1880년 사상적 전향기에 평소 지녀왔던 말초적인 문명예의 의혹들을 궁구하며 밀고, 마침내 인생의 참가치를 ‘자연관’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종교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끝으로 생의 구원마저도 뒤유하며 이별하였습니다. 오랜 관심을 기울인 사상과의 결별이 힘겹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신이 구출한 종교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 재산과 지위를 던지고 일개 농민으로 돌아가 자연과 더불어 독서와 공부와 저술로 일상을 엮어갔습니다. 작가 솔 벨로우도 마찬가지 삶이었지요. 그들이 암중 모색한 자연주의는 위선적인 문명부터 과감히 벗어 던졌지요.

뉴스퀴즈

68. ‘한국 골프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 선수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미켈름올트라 오픈에서 우승, 명예의 전당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27점을 모두 확보한 이 선수는 또 다른 조건인 10시즌 현역 활동을 지난 8일 맥도널드 LPGA 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면서 채워 아시아인으로는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박세리 ② 김미현 ③ 박지은 ④ 위성미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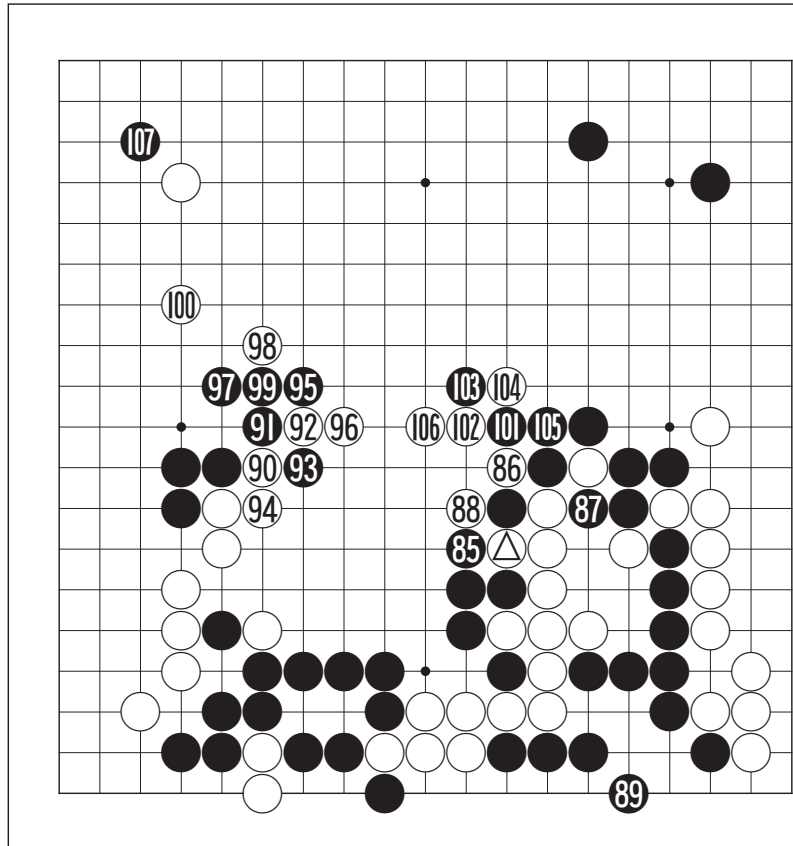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상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대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낼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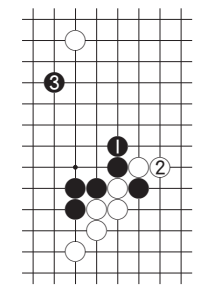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12일(음 4월 27일 丁丑)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제16회 광일배 직선대항 1회전



<참고도>

빛나는 자리 백 100 5보(85~107)
백 최한용 5단 (조선대)
흑 백동원 5단 (광주시청 A)

백 100 쪽 짜르자 흑의 응수가 없어졌다. 백 동원 5단은 고 심골에 일단 85로 막고 보았는데 이것은 오른쪽 흑 대마를 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오른쪽 흑 대마는 천만다행으로 흑 89에 두어 사는 묘수가 있었다. 백 88로 시원한 뺨뺨을 최한용 5단은 한껏 기세를 올리며 90으로 맞대었다. 이 수로는 좌상귀를 굳힐 수도 있지만 흑이 모를 흑의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 흑 95로 물고 97로 후구한 것은 모양잡음의 틀인데 지금은 백이 100으로 벌림 겸 협공을 해온 것이 너무나 빛나는 자리가 되어서 의문이었다. 95로는 단순히 ‘참고도’의 흑 1로 늘어 선수를 잡고 3으로 귀에 걸쳐가는 것이 평범하면서도 좋은 수였다. 백동원 5단은 실례를 의식했는지 101부터 106까지를 결정지은 다음 107로 3.삼에 침입하는 등 형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바둑소식

이세돌, 바둑아시아선수권 첫승

이세돌 9단이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9회 TV바둑아시아선수권대회 본선 1회전에서 일본의 유기 사토시 9단을 255수 만에 백 7집 반으로 꺾고 본선 2회전에 진출했다. 이어 열린 대국에서 최철한 9단은 중국의 박문오 5단을 143수 만에 흑 불계로 제압, 2회전에 합류했다. 이세돌 9단은 지난 대회 우승자인 왕시 9단과 결승진출을 다투게 됐고, 최철한 9단은 조지훈 9단-천야오에 5단의 승자와 결승 진출을 놓고 격돌한다. 이 대회는 한국의 KBS, 일본의 NHK, 중국의 CCTV가 주최하는 초속기 프로기전이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24>
Do you know a good gynecologist?
실력있는 산부인과 의사를 아세요?
A: Do you know a good gynecologist?
B: Are you pregnant or something?
A: I'm not sure, but I can't stand the smell of meat. All I want to eat is pickles.
B: Great! Hop in my car. I'll take you to the best gynecologist in town.
A: 여보, 괜찮은 산부인과, 아세요?
B: 임신이라도 했어?
A: 확실하진 모르겠는데, 고기냄새가 역겨워서요, 시름한 것만 먹고 싶거든요.
B: 잘됐네! 차에 타라구! 시내에서 제일 좋은 산부인과로 모셔드릴게!

오하오우 니혼고 <924>
朝(あさ)ごはんはいつも抜(ぬ)きなんですよ
아침은 항상 거르거든요
A: 一緒に(いっしょ)にトストでも食(た)べに行きませんか。
B: ええっ、10時(じ)なのにもう腹(はら)へったの。
A: 朝(あさ)ごはんはいつも抜(ぬ)きなんですよ。
A: 같이 토스트라도 먹러 가자 않음래요?
B: 뭐? 10시인데 벌써 배고픈 거야.
A: 아침은 항상 거르거든요
抜(ぬ)き: 빼고
(여기서는 식사를 ‘빼고’ 즉 ‘생략하고’, ‘거르고’)
腹(はら)へった: 배가 고프다
(주로 남자들이 사용하는 회화체)
=お腹(なか)すいた
朝(あさ)ごはん: 아침밥

니하오 쑹구워 <115>
寄到韩国多少钱?
한국으로 부치는데 얼마예요?
A: 请问往韩国寄包裹最快需要多长时间?
Qingwen wang hanguo ji baoguo zui kuai xuyao duochang shi jiant?
정원 왕 한구워 지 바오구워 웨이 쿠아이 쉬야오 두워 창 스키엔?
B: 特快专递24小时就能到。
Te kuai zhuan di ershi si xiaoshi jiu neng dao.
터 쿠아이 주안 디 얼스스 시야오스 짜우 님도오.
A: 寄到韩国多少钱?
Ji dao hanguo duoshao qian?
지 따오 한구워 두워 샤오 치엔?
B: 我帮你称一下, 然后告诉你。
Wo bang ni cheng yixia, ranhou gaosuni.
워 뽕 니 칭 이씨알, 란허우 까오수니.
A: 실례하지만 한국으로 소포를 가장 빨리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B: 특급 우편으로 보내면 24시간 만에 바로 도착 할 수 있어요.
A: 한국으로 부치는데 얼마예요?
B: 제가 당신을 도와서 무게를 달아 본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包裹 [baoguo] 소포
特快专递 [Tekuai zhuan di] 특급우편(배달)
称 [cheng] 무게를 달다

한자 이야기 <541>
龍顔(용안)
용룡, 얼굴 안
용안(龍顔)은 말 그대로 하면 ‘용의 얼굴’이지만, 임금의 얼굴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중국에서는 황제를 가리킬 때, 용에 비유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황제의 얼굴을 용안(龍顔), 덕을 용덕(龍德), 지위를 용위(龍位), 의복을 용포(龍袍), 수레를 용가(龍駕), 눈물을 용루(龍淚)라고 한다.
그러한 유래를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나오는 한(漢)나라 고조 유방의 출생과 얽혀 있는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방의 어머니 유오가 큰 호숫가에 앉아 쉬고 있다가 갑박 잠이 들어 용신(龍神)을 만난 꿈을 꾸었는데, 이때 호수 주변은 천둥 번개가 치고 짙은 어둠에 싸여 있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본 남편 태공이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그의 아내가 있는 근처의 하늘 위에서 교룡(蛟龍)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이렇게 용꿈을 꾸고 임태된 아들이 바로 유방이었다고 한다.
유방은 태어날 때부터 코가 우뚝 솟았고, 얼굴은 용을 닮았으며, 왼쪽 넓적다리에는 점이 72개가 있었다고 한다. 이 유방이 훗날 황우를 물리치고 전하를 통일하는 고조가 되었기 때문에 천자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하는 것이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용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트 밴드
제품구입문의: (주)호원약품 062-383-5883